

실적 악화에도 성과급 '떼 파업'... 현대제철 직장폐쇄

사측, 노조 복귀 때까지 당진 공장 1·2라인 일부 폐쇄 강행 20차례 임단협에도 기본급·성과급 인상률 두고 '평행선' 철강 위기로 악전고투... 금속노조까지 가세 총파업 번질 판

현대제철이 노조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카드를 꺼냈다.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25일 스키아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직장 폐쇄에 대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직장폐쇄를 계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24일 낮 12시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후 업무 복귀 시까지 당진 제철소 12 병연공장 PL·TCM 라인을 직장폐쇄 한다고 밝혔다. PL·TCM 라인이 가동되지 않을 경우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현대제철

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더 이상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해짐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초래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2항 규정에 따라 직장폐쇄 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노사는 20차 임금 단체 협약을 넘기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차량 구매 대출 시 2년간 10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 △정년퇴직자 대상 3년마다 20% 차량 할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사측은 기본급 450%와 1000만 원 경영상과급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현대제철은 실적이 좋지 못한 상태다. 현대제철 공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현대제철이 노동조합 파업에 대응해 24일 당진제철소 병연공장 일부 라인에 대한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부분 직장폐쇄 공고문(작은 사진). 현대제철 독자 제공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 23조2261억 원과 영업이익의 3144억 원에 당기순이익의 123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0.6%와 72.2% 감소했다. 현대제철은 건설 시황 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증가

의 영향으로 실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의 실적 악화에도 노조가 물러서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직장폐쇄 조치가 나왔다. 자체가 반복되는 노조의 게릴라성 파업에 결국 사측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영업이익의 급감을 이유로 성과급 규모를 축소하려고 했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노조는 1월21일과 22일 충남 당진제철소 병연공장 파업을 진행했고 2월 2일과 11일에도 24시간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약 27만 t의 생산 손실과 손실액 254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는 24일 오후 2시 충남 당진에서 확대간회의 및 결의대회를 열고 26일과 27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직장폐쇄 조치 이후 유보됐다. 그러나 현대제철 노조는 부분파업 기조를 폐기하지 않았다. 또한 상위 단체인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직장폐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후 총파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의 부분 직장폐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선전포고다"며 "앞으로 나타날 모든 문제의 책임은 그룹사 통제 전략을 고수하는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있으며 금속노조는 자본의 폭력에 맞서 투쟁으로 승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폐쇄와 노조의 26·27일 파업 유보 이후 노사 간 공식적인 대화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트럼프 2기 제약정책에 울고 웃는 K바이오

신약 승인 규제완화 등 기회 글로벌사와 경쟁 심화는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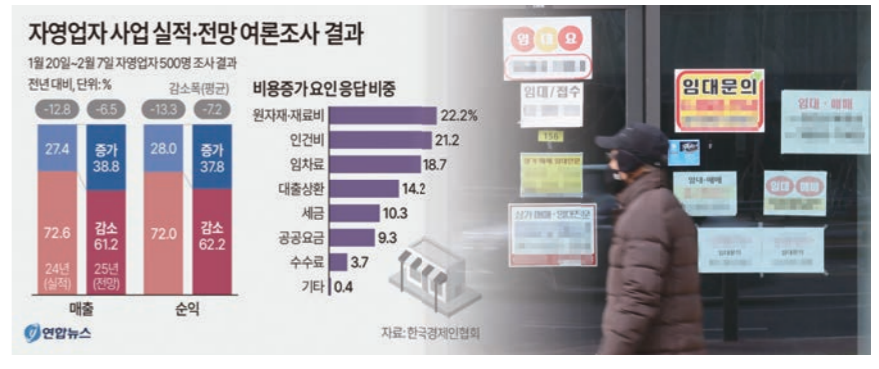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약 산업 정책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 신약 승인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 및 글로벌 제약사와의 경쟁 심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과 의약품정책연구가 발표한 트럼프 2기에 따른 미국 제약바이오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는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이 한국 제약사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경쟁 심화로 가격 경쟁이

시열해지고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한 약가 통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한국 제약사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지만 인도·유럽·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미국 내 생산 의약품 우선 구매

△생물보안법 제발의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국 제약사가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사례는 많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이 수입 의약품에 보편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산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산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에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 역시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약 승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신약 개발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FDA의 규제 완화와 특허 보호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 수출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작년보다 순이익 줄었다"

500명 평균 매출액 1.2억 원



가게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월 20일부터 7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3%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응답자들이 밝힌 순이익의 증감 폭을 산술적으로 평균 낸 값이다. 순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72.0%로, 증가했다는 응답은 28.0%였다. 매출의 경우 응답자 72.6%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한 가운데 평균 변동 폭은 -12.8%로 조사됐다. 올해도 순이익과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62.2%·61.2%로 나타났다. 예상 감소 폭은 순이익이 7.2%, 매출이 6.5%였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 상환 원리금(14.2%)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은 1억2000만 원으로 월 이자 84만3000원, 연 금리 8.4%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4.7%, 소액 대출 금리는 6.9%임을 고려할 때 상당수 자영업자가 비은행금융기관에서도 대출 받았을 것이라고 한경협은 추정했다. 폐업 관련 질문에선 응답자 43.6%가 향후 3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 사정 악화·대출 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등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 꼽혔다.

경기회복 전망 시점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25.8%) △내년 상반기(24.4%) △내년 하반기(1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34.9%) △원부재료 매입비 부담(24.0%) △인차료·세금·수수료 부담(12.3%) △대출 상환·금리 부담(11.6%) △인건비 부담(9.1%) 등이 꼽혔다. 필요한 정부 대책에 대해선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확대(22.1%) △소비 촉진 방안 확대(20.9%) △원부자재 가격 등불가 안정화(14.0%) △임대료 지원 강화(11.7%) △공공요금 인상 억제(10.5%) 등이 나왔다. 김나연 기자 nykim@skyedaily.com

중공과 더불어 불법·부정선거·반역·위헌정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불법체포·감금하고 있다!

Truth Korea 민주당해산국민운동본부 - 1000만 서명운동!

부정선거를 밝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체포·구금한 세력은 중국공산당의 앞잡이·국회독재 더불어중공당입니다. 부정선거에 침묵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키지 않은 국힘당 또한 친중·기득권·윤석열 대통령이 싸우고 있는 반 대한민국 세력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조 1항·2항의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반역·매국의 무리를 일소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국민저항권 - 헌법 1조 1항·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중공과 더불어 부정선거, 국민주권 도둑질한 민주당 해체 반역의 증거! 4800 억법·8만 조세 원천무효!!!
"우리 대통령, 우리 기업, 자유와 생명 재산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은 중공의 개인가?
"국민 여러분의 주권을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Truth Korea 활동-부정선거 알리기 전 국민 계몽운동

- 민주당해산 1000만 서명운동 <https://naver.me/FhUmhKTZ>
- 전국 현수막 운동-중공침략·부정선거·반역 더불어민주당 해산!
- 부정선거 독후감 이벤트
- 10만 사이버전사·온라인 댓글 활동!
- 문화전쟁-영화(하보우만의 약속) 제작, 3월말 개봉, <부메랑5-18> 국민편드 진행
- 소액주주운동-금투세 등 악법 폐지 활동과 우리 기업 지키기 활동
- 맘카페 회복 - 좌경화된 맘카페 회복을 위한 구체적 작업!
- 전국 조직 2026년 지방선거 준비!
- 미래 지도자 양성! - 사회·경제·역사와 문화·영어

문의 : 010-2705-5000

진실과 진리로 싸우는 애국진보! Truth Korea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민.해.본
후원: 기업은행 024-101637-01-014